

천주교 캔버라대교구 한인 성당

The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Archdiocese of Canberra and Goulburn

(녹) 연중 제 16 주일 (농민 주일)



전담신부 : 진윤기 토마스 아퀴나스

주일미사 : 오후 3시

고해성사 : 미사 전 30분

어린이 전례 : 주일 오후 3시

유아세례 : 이메일로 문의 주세요.

(이 메 일 : canberra.kcc@gmail.com)

주 소 : South Belconnen Parish

7 Bindel Street, Aranda, ACT 2614

안내전화 : 0490-795-346

홈페이지 : <https://www.kcccanberra.org/>

성모님과 함께 하는 기도모임(9월 기도)

화요일, 19:00, 온라인(Zoom)

퀸비안 사랑의 선교회 봉사활동

일시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09:00~12:00

장소 : 3 West Ave, Queanbeyan, NSW

[교황님 기도지향 - 7 월]



복음화 지향 : 노인들

민족의 뿌리와 기억의 상징인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혜로 젊은이들을 도와 그들이 희망과 책임감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 보도록 기도합니다.

오늘 전례 오늘은 연중 제16주일이며 농민 주일입니다. 지혜롭고 자애로우신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에 모이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들려오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형제들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섬기도록 합시다.

제1독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18,1-10ㄴ

<나리, 부디 이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화답송 시편 15(14),2-3ㄱ.3ㄴㄷ-4ㄱㄴ.5(◎ 1ㄱ)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말씀입니다. 1,24-28

<과거의 모든 시대에 감추어져 있던 신비가 이제는 성도들에게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복음 환호송 루카 8,15 참조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38-42

<마르타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 들였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영성체송 시편 111(110),4-5

당신 기적들 기억하게 하시니,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시다. 당신 경외하는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다.

영성체 후 묵상

마르타처럼 시종드는 일로 분주하고 많은 일을 염려하며 걱정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잠시라도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들어 봅시다.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2022년 7월 17일(다해)

연중 제 16 주일 (농민 주일)

♣ 제 16 차 세계주교시노드 소개 8 회 - 의정부교구가 경험한 시노달리타스 (1) ♣

시간을 거슬러 2004 년으로 가봅시다. 의정부교구는 2004 년 6 월 24 일 서울대교구에서 분리·설립되었습니다. 분리 당시 의정부교구 지역에는 사제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스스로 지원하는 사제들로 새 교구를 꾸리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당초 지원자가 많지 않을 거라는 예상과 달리, 173 명이라는 엄청난 수의 사제가 자원하였습니다. 하지만 새 교구로 자원해온 사제들에게 당시 사목 여건은 매우 열악했습니다. 일단 사제들의 숙소를 구하는 것이 숙제일 정도였고, 소임은 받았지만 사무실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목을 위한 자원이 너무나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새롭게 시작한다는 기쁨과 설렘, 그리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지가 넘쳐났습니다. 모든 교구민은 마음을 모아 여러 부족함을 함께 메워나갔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보여준 일례가 있습니다. 당시 교구청 식당 칠판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선물 목록이 적혔던 일입니다. '○○ 성당에서 사과 한 상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고기는 ○○ 신부님의 선물입니다.' '○○ 공동체에서 간식으로 떡을 주셨습니다.'

사제들은 솔선하여 청빈을 실천하고, 사목에도 정성을 기울였습니다. 신자들은 이전까지 겪어보지 못한 사목적 배려와 새로운 분위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레 적극적으로 화답하였습니다. 시간을 내어 더 자주 모였고, 없는 살림을 쪼개 이웃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교구 내 신설 본당이 생길 때마다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이 모습은 지금도 다양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설립 20 주년을 향해 가는 지금, 의정부교구는 교세 성장은 물론이고 사목의 여러 측면에서 모범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범은 기존의 타성에서 벗어나 솔선하고자 노력한 사제들과, 신자들과 사제를 잇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수도자들 그리고 모두를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응답한 신자들의 협력으로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익숙해진 모습이 더는 우리 스스로 새로울 게 없지만, 여전히 다른 교구에는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노달리타스는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낯설기만한 새 주제가 아닙니다. 이번 세계주교시노드의 목적은 이미 경험해온 '함께 걸어감'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이를 심화·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시노달리타스를 주제로 한 이번 시노드를 계기로 개인의 신앙과 공동체의 활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 연중 제 16 주일 (농민 주일) 복음 필사 |

내 마음의 정경
한구절



'마르타와 마리아 집의 그리스도'
안 베르메르 작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루카10,42).

.....
.....
.....
.....
.....

※이번 주일 복음을 읽고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직접 필사해보세요.

'제 2 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전대사 안내

“늙어서도 열매 맺으리라”(시편 92[91],15)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제정하신 제 2 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2022년 7월 24일)을 맞이하여, 사도좌 내사원에서는 신자들의 신심을 강화하고 영혼들의 구원을 북돋우려는 목적에서 전대사를 수여하였습니다.

전대사 조건

'제 2 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2022년 7월 24일)'에

- 1)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고
- 2) 영성체를 하고 3) 교황님의 7월 기도 지향인 '노인들을 위해' 기도하며, 아래 내용 중 하나를 실천할 경우 모든 신자들은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① 진정한 참회와 사랑의 정신으로 미사에 참여하기
 - ② 도움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연로한 형제자매들(병든 이들, 버려진 이들, 장애인)을 방문하거나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만나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기
- ※ 연로한 병자와 중대한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신자는 모든 죄를 멀리하고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전대사의 통상 조건(1~3)을 충족하려는 지향으로, 이날의 거룩한 예식들에 영적으로 일치하여, 특히 교황 성하의 말씀과 교구의 관련 여러 예식이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서 전해지는 동안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신들의 기도와 삶의 고난과 고통을 봉헌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 수기 공모

어르신들께서 신앙 안에서 경험한 삶의 지혜와 신앙고백을 편지글 형식으로 나누는 신앙 수기를 공모합니다. 성전 입구에 마련된 양식지에 수기를 작성하신 후 7월 24일(주일)까지 교무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엽서 보내기

우리 공동체에서는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부모님과 대부모, 은인들에게 엽서 보내기를 진행합니다. 성전 입구에 마련된 엽서에 감사와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제출하시면, 공동체 차원에서 일괄 발송합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교우분들은 미리 받으실 분의 주소와 내용을 준비하여 작성하신 후 7월 31일(주일)까지 교무금함에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 27 회 농민주일 담화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블라시오) 아빠스)

박현동(블라시오) 아빠스님께서 7월 17일 제 27 회 농민 주일을 맞아 '적은 것이 많은 것입니다'(「찬미받으소서」 222 항)라는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블라시오 아빠스님은 담화문에서 보편교회가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농업과 관련해 교회가 탄소중립을 향한 발걸음에 어떤 실천으로 부합해야 하는지 살피고 올바른 방향으로 매진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특히 대량 생산의 자본주의적 농업 방식이 탄소중립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시면서, "일상을 돌아보며 습관적인 소비의 삶에서 벗어나는 '생태적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한다"며 "대량 소비와 편리함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에게 참다운 삶의 기쁨을 주며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생태 영성의 삶을 살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유학생과 젊은이들을 위한 바자회 및 모금 안내

우리 공동체에서는 캔버라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유학생과 젊은이들을 공동체로 초대하여 함께 미사에 참례하고 이들과 친교를 나누며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2년 8월 21일(주일) 주일미사 후, 성당 및 오라나 교육관
- 행사 구성 : 음식나눔(비빔밥), 바자회
- 후원 및 봉사 : 바자회에서 판매될 생활용품 및 식음료 기부, 행사지원금 후원, 행사준비 및 진행을 위한 봉사
- ※ 행사지원금 후원은 공동체 교무금 온라인 계좌이체 또는 성전 입구의 교무금함을 통해 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또는 교무금함 사용시 'Youth Support'라고 지향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7월 19일(화) 소공동체장 회의에서 세부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된 내용들을 추가로 공지드릴 예정입니다.

교무금 납부 확인서 배포(7월 17일(주일)부터) 및 공동체 재정보고(7월 17일(주일)) (문의 : 이지영 아네스)

♡ 시드니 울뜨레야 간부분들의 우리 공동체 방문을 환영합니다. ♡

| 연중 제 16 주일 (농민 주일) 주간실천 |



피조를 보호를 위한 50가지 손쉬운 방법 ⑥
윤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만드는 '공정무역제품'을 구입하기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탄소발자국 줄이기 ③
스마트폰 사용시간 줄이기
→ 데이터 1MB만 덜 사용해도 탄소 11g을 줄일 수 있어요.
(자료 제공 _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CBCK)

cpbcTV 가톨릭평화방송

불타는 지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우리는 주님의 생태 사도입니다]
| 생활성서사 | 가톨릭 콘서트 씬
| 유경춘 티모테오 주교

성경과외 해주는 신부

[가톨릭성경통독 꿀팁가이드]
사무엘기 상권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사무엘기 주인공은 다윗 |
판관시대 가고 왕정시대 온다

천주교대구대교구

SYNODALITAS, 무엇인가요?
- 시노드 1차 모임은 이렇게! -



[동영상 보기 - 이미지 클릭]

모든 이가 초대된 시노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을 보시고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일 미사 참례자수

7월 3일	성인 39 아이 14	7월 10일	성인 28 아이 10
-------	-------------	--------	-------------

□ 우리들의 정성 (7월 9일(토)~15일(금))

권요순	김요한	남궁영근	안영규	양홍석	이지영	장호훈	정수민
주정자	황병욱	교무금 : \$520 (10 가정) / 봉헌금 : \$165					

※ 교무금 온라인 납부/공동체 계좌 정보 (Reference : 납부자 이름 반드시 기재)

Name : Korean Community Church / BSB : 062786 / Account Number : 000027424

□ 봉사자 안내

- 독서 : (7월 17일, 연중 제 16 주일, 농민주일) 주정자 루치아, 이상명 다니엘
(7월 24일, 연중 제 17 주일, 조부모와 노인의 날) 이국원 필립보네리, 김미현 보나
- 미사 후 성당 뒷정리 : (17일) 요한반 → (24일) 마르코반 → (31일) 마태오반
- 미사 후 다과·친교(매 2주 1회) : (24일) 마태오반

※ [어린이 안전 규정] 성당 주변에서 어린이들이 보호자의 보호와 지도 아래 있을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 김 다니엘(어린이), 김록희(중고등), 이상명 다니엘(마태오반, 21일), 정수민 비르짚다(마르코반, 23일)의 영명축일을 축하합니다.

♡ 제 2 차 세계 조부모와 노인의 날 기도

<https://missa.cbck.or.kr/Prayer/864>



♡ 매일 만나는 기쁜소식 (이미지 클릭)
하느님의 선물, 복음의 씨앗인 거룩한 말씀을 통해 건강하고 은총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